

세디요정부를 통한 멕시코 민주화연구, 1994-2000

김달관

단국대학교 아시아·아메리카 문제연구소 연구원

2000년 7월 멕시코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그 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PAN) 비센테 폭스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로써 전통여당이었던 제도혁명당(PRI)이 멕시코 정치체제에서 71년(1929-2000)동안 구축한 정치적 헤게모니를 상실했다. 멕시코는 최근 30년(1970-2000)동안 점진적인 정치자유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 출현이라는 역동적인 과정을 겪었다. 1968·1976·1982·1987·1994년에 경제순환 주기상의 규칙적인 경제위기와 갈등이 사회적·정치적 분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적·정치적 공간에 1985년 멕시코 지진사태를 기점으로 시민사회 출현이라는 새로운 정치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공간을 통해 시민사회와 야당은 1987·1990·1993·1996년에 정치·선거 개혁을 성취할 수 있었다.

멕시코 민주화 이해의 주요한 관점은 경제적·정치적·선거적 요소 등이 민주화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3개의 관점은 그 스스로도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다. 멕시코 민주화과정의 구체적 시간의 축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마침내 이 3개의 과정이 멕시코 민주주의로 수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민주화 분석은 경제·정치·선거라는 구조적인 접근이며, 결과적으로 멕시코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는 정치행위자 관점에서의 분석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멕시코 정치구조와 정치문화의 주요한 정치행위자는 대통령, 정치공동체, 시민사회 등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멕시코 민주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디요 대통령을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멕시코 경제·사회·정치변화를 주목하면서, 최근 멕시코 정치변동과정에서 정치적 구심점으로 작용했던 세디요 대통령의 정치적 역할과 그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자 한다.

◆ **키워드**: **멕시코, 민주화, 세디요, 정치개혁, 시민사회**

요약

비센테 폭스(Vicente Fox) 멕시코 대통령이 집권한지 2년이 벌써 지나갔다. 올해 7월 비센테 폭스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인 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2002년 하원 정례보고의 비센테 폭스 정부 자료를 보면, 확신할 수 없지만 2003년 7월 하원선거에서 현재 여당인 국민행동당(PAN)의 선거결과가 그리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역사상 처음으로 2000년 7월 선거에서 전통야당인 국민행동당 소속 대통령 후보인 비센테 폭스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로써 멕시코 야당소속 대통령 후보의 승리는 71년(1929-2000) 동안 정치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전통여당인 제도혁명당(PRI)이 구축한 “6년군주제(monarquía sexenal)”를 무너뜨렸으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에르네스토 세디요(Ernesto Zedillo)는 “6년군

주제”의 ‘마지막 군주’로 기록되었다.

최근 멕시코에서 이룩한 정치개혁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수용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인 PRI는 대통령 후보를 역사상 처음으로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했다. 전통적으로 PRI의 대통령 후보 선출은 대통령이 직접지명을(일반국민은 대통령 직접지명을 “dedazo”, “destape”, “cargado” 등으로 부르고 있다)통해 선출했다. 멕시코에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다른 표현인 대통령 후보 직접지명이 PRI 당내 자유경선을 통한 추대형식으로의 변화는 멕시코 정치문화의 깊은 단절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PRI의 당내 민주화는 멕시코 정치 시계바늘을 반대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거형태로 나타나는 야당의 정치적 도전에 직면한 PRI의 권위주의적 정치행태에 의한 주기적 악화의 결과로 판단된다.

실제로 독특한 멕시코 정치구조와 정치문화에서 대통령의 위상은 모든 국정 운영과 여당인 PRI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정치적 구심력이자 원심력의 진앙 중심지로 강력한 권력을 소유·행사한다. 이러한 독특한 멕시코 정치에서 대통령의 개인적 의지와 협력 없이 평화로운 정치개혁을 이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세디요 대통령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행정부와 여당인 PRI의 정책방향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세디요 대통령 임기 시에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세디요 대통령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이이었을까? 그것은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합법성(legalidad), 국민주권(soberanía ciudadana), 민주주의(democracia)에 대한 확신이라고 언급할 수 있다. 이러한 세디요 대통령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PRI 뿐만 아니라 전반적 멕시코 사회에 영향을 끼쳤으며, 마침내 2000년에 이룩한 멕시코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었다. 이러한 논리선상에서 2000년 7월 멕시코 대통령 선거 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비센테 폭스의 대통령 당선은(2000-2006)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민주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경제적·정치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30년 동안(1970-2000) 멕시코는 점진적 정치자유화 과정과, 결과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시민사회 출현이라는 역동적인 과정을 겪은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멕시코 사회는 1968·1976·1982·1987·1994년 등 경제순환 상에 주기적이고 규칙적인 경제적 위기와 갈등이 사회·정치 분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하에서 멕시코 정치자유화 과정은 1968년 학생운동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변증법적 정치자유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사회적·정치적 공간에 시민사회 출현이라는 새로운 틈새정치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경제위기는 멕시코 정치 권력구조와 긴밀히 연관된 정치적 변화주기와 일치하는 맥락이 있다. 다시 말하면, 멕시코 경제위기 사이클은 정치 변화주기 사이클과 상당한 일치성과 규칙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의 세계적인 국제노동분업

구조 하에서 멕시코 정치는 국내요소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일 정부분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멕시코 사회는 세계의 정치적·경제적 권력의 자기장에 편입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멕시코 민주화 이해의 주요한 관점은 경제·정치·선거 요소 등이 민주화과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3개의 관점은 그 스스로도 중요성을 함의하고 있다. 멕시코 민주화 과정의 구체적인 시간의 축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한 채로, 이 3개의 과정이 멕시코 민주주의로 수렴되었다. 특히 멕시코 민주화 과정에서 선거 요소는 점증하는 자유화 과정을 통해서 1977·1987·1990·1993·1996년에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정치·선거 개혁을 통해 정치적 틈새공간을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정치공간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즉, 공정한 선거참여와 경쟁, 민주적 수단을 통한 정기적인 정치지도자 선택, 민주적 정치체제의 안정성 또는 제도화 등이 있다. 민주주의 핵심이 공정한 선거에 의한 정치지도자 선택이라면,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의해 선출하지 않았던 정부의 대체에 있을 것이다. 반대로 자유화 과정은 공정한 경쟁선거에 의해 정치지도자를 선출하지 않았던 권위주의적 정권의 부분적인 개방이다(민준기, 1993: 21). 따라서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정치사회의 관계로써, 평화적으로 정부를 형성하고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경쟁하며, 그들의 유권자들을 대표하여 집단적인 행위과정에 위임하는 시민사회와 충분한 연계를 가지는 정치제도들의 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문병주, 2000: 44). 그러나 이러한 민주화 과정은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며, 또한 사회·경제구조,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관계, 문화적인 요인 등에 따라 그 내용과 차원을 달리한다.

헌팅턴(Huntington, 1991: 43-46)이 『제3의 물결』에서 언급한 민주화 유형에 의하면¹⁾, 멕시코 민주화 유형은 4번째 유형인 직접이행이다. 즉, 코포라티즘적 사회기반에 근거한 일당체제의 안정된 권위주의 체제에서 안정된 민주화로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약화되긴 하였지만, 안정된 멕시코 권위주의 체제의 멕시코혁명 계승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정통성과 법적·제도적 틀에서의

1) 헌팅턴에 의하면 민주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순환형: a-d-a-d-a-d
- (2) 제2차시도: A-d-a-D
- (3) 중단된 민주화형: A-D-a-D
- (4) 직접이행: A-D
- (5) 탈식민지형: D/a-D

a와 d는 불안정한 권위주의와 불안정한 민주주의를 의미하며, A와 D는 안정된 권위주의와 안정된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자신감의 반영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 불안정한 권위주의를 거쳐 다시 안정된 민주화에 이르는 3번째 유형을 거쳐 갈지는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하다.

멕시코 민주화 분석에서 경제·정치·선거 등은 구조적인 접근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멕시코 민주주의’ 연극은 경제·정치·선거라는 화려한 무대장치와 분위기를 제공하지만, 연극을 이끌어 가는 배우가 없다. 따라서 정치현상을 구조로만 인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정치행위자라는 측면에서 멕시코 민주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정치행태란, 항상 정치적 역할의 수행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다. 그러나 정치적 행동을 단지 개인이나 집단의 개인성원 범위에서만 파악한다면 정치현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할이론에 근거하여 개인의 심리적 특성 분석보다는 좀 더 거시적 분석으로서 정치적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한다(김재영 외, 2000: 44-45). 즉, 멕시코 정치구조와 권력관계에서 세디요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정치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멕시코의 경제·사회·정치 변화를 주목하면서, 최근 멕시코 정치변동과정에서 정치적 구심점으로 작용했던 멕시코 대통령 세디요의 정치적 역할과 그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Ⅳ. 2. 3. 1. 2

1. 세디요 대통령 승계과정

1993년은 살리나스(1988-1994) 정부가 직면할 중요한 도전들이 있던 해였다. 그것은 대통령 승계과정을 준비하고, 1994년 선거기간 동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PRI를 구조적으로 재편성하여, 여당인 PRI의 단위조직들을 훈련시키며 조직강화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1993년 멕시코 정치무대는 이미 3명의 여당소속 대통령 후보가 거론되고 있었다. 거론되던 후보는 사회발전부(Secretaría de Desarrollo Social)의 장관이며 전 PRI 지도부에서 일했던 루이스 도날도 콜로시오(Luis Donald Colosio), 멕시코 자치주 시장인 마누엘 까마초(Manuel Camacho Solís), 그리고 재경부 장관인 페드로 아스페(Pedro Aspe Armella)였다. 이 세 사람 모두 살리나스의 콤팩트그룹에 속하는 인물들이었다.²⁾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에서 1993년 11월 27일 PRI는 모든 PRI 소속 주지사들, 연방상원·하원 의원들, PRI의 전국집행위원회(Comité Ejecutivo Nacional: CEN)

2) “콤팩트그룹(grupo compacto)”은 1980대 초반에 까마초(Manuel Camacho Solís)와 살리나스가 주축이 되어 만든 일종의 클럽으로써 살리나스가 대통령에 집권한 후에는 중요 요직을 맡았다.

위원들 등 행정부의 거의 모든 각료들을 소집하여,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의식에 모두 참여했다. 살리나스 대통령은 권력핵심 세력에 속하는 몇몇의 주연급 배우가 참여하는 전국규모의 정치무대에서 약간의 불거리와 깜짝쇼를 제공하며, 전통적 관객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전형적인 할리우드식 정치무대에서 총감독으로 활동했다. 그 무대의 주연급 배우는 마누엘 까마초, 빠드로 아스빠, 에르네스또 세디요와 가장 중요한 주연인 주인공 풀로시오였다(Villamil, 1995: 107-108).

이러한 정치 이벤트에서 PRI 소속 대통령 후보에 풀로시오가 추대되었으며, 그가 PRI 소속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는 몇몇 단계를 거친 전략적인 경력관리가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상원의원과 PRI의 전국집행위원회(CEN)의 의장으로써 멕시코 정치인들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고 상원과 하원을 통해 새로운 정치인들 출현을 용이하게 도와주었으며, 또한 모든 멕시코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함으로써 멕시코 전역에 전국적 정치인으로써의 기반을 닦는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에 전국연대프로그램(Pronasol)을 주관하는 사회발전부 장관에 취임하여 일반 서민층과 더욱 가까울 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풀로시오는 살리나스 대통령이 PRI의 다음 대통령 후보임을 확실히 하는 신호로써 그리고 다음의 멕시코 대통령임을 암시하는 것으로써, 살리나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지명 전야 미국 방문에 동반한 유일한 대통령 후보였다(Ruiz, 1998: 50). 풀로시오는 살리나스 프로젝트를 지속시키고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살리나스 대통령에 의해 오랜 동안 체계적으로 미래의 대통령으로써 제왕학 학습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Ramírez, 1997:45-47).

1994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PRI 공식 대통령 후보자로 임명된 뒤에, 1994년 3월 6일 PRI 창설 65주년 기념식에서 풀로시오는 그의 대통령 선거캠페인 때보다 강한 톤의 정치연설을 하였는데, 그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Pérez et al., 1995: 28-29).

1. 제왕적 대통령제를 시정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혁
2. 실질적인 멕시코식 연방제 실시
3. 행정부와 PRI의 새로운 관계정립
4. 변화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한 PRI 내부의 자체비판 허용
5. 사회요구에 PRI의 정치적 무감각 인정
6.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제반 특권에 대한 제거 노력
7. 모든 사회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들의 차단
8. 프로젝트 지속성의 유일한 수단으로써 변화 전제를 인정
9. 공공재정부문에서 경제적 확실성 보장
10. 투명한 선거보장
11. 선거과정에 외국 참관인과 내국 참관인 허용

그날 연설에서 대통령 후보로써 꼴로시오는 그때까지 멕시코 정치에서 터부시되던 주제들을 언급했는데, 정치개혁과 관련한 꼴로시오의 정치적 목표는 1994년 3월 6일 행한 연설에 잘 나타난다. 이렇게 꼴로시오는 제도의 강한 민주화를 추구한다는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Calderón, 1996: 90-91).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면, 꼴로시오 연설의 내용과 톤이 살리나스 대통령과 상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은 권위주의적 자유주의를 취소하고 개혁을 추구하기 위해, 꼴로시오와 다른 인물들이 동맹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인식되었다(Ortiz, 1997: 182). 사실 꼴로시오는 PRI의 중요한 정치인들의 충분한 지지가 부족했다. 이러한 점은 대통령선거 캠페인이 PRI의 지지와 지원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꼴로시오 선거 캠페인이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불안과 불확실한 상황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멕시코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다른 후보로 대통령 후보가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공공연히 언급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3년 12월 7일부터 꼴로시오는 살리나스 대통령의 압력을 느끼기 시작했다(Ramírez, 1997: 124-126). 이는 일시적인 불만 이상으로, 일련의 구체적인 사실은 살리나스 대통령이 꼴로시오의 대통령 후보 사퇴 가능성을 진지하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Ramírez, 1997: 126-127). 이후 1994년 3월 23일 (PRI 창설 65주년 기념 연설 2주 후에) 꼴로시오는 그의 선거모임을 끝내고 나오던 멕시코 북서부 지역인 바하 칼리포르니아(Baja California)주의 로마스 따우리나스(Lomas Taurinas) 지역에서 암살되었다(Blancorelas et al., 1997). 꼴로시오의 암살은 새로운 대통령 후보 지명과 관련된 PRI 내의 권력투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때 당시, 살리나스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할 수 있는 후보들은 첫 번째 대통령 후보지명 때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행정각부 장관들이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 6개월 전에 장관직을 사퇴해야 했으나, 그때 당시 선거기간까지 5개월이 남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적 스펙트럼은 매우 축소되었고, 가능한 대통령 후보 중에서 꼴로시오 선거캠프의 총책임자인 에르네스토 세디요(Ernesto Zedillo)가 가장 적당한 후보로 보였다.

1994년 3월 23일 대통령 공식후보 암살은 대통령 선출과정 자체를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암살 사건으로 멕시코의 경제가 다시 불안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그때부터 연말까지 외국투자의 약 230억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갔는데, 이 자본도피 액수는 살리나스 대통령 6년 임기 동안 유입된 외국투자의 40%에 해당한다(Aziz, 1996: 41; Ramírez, 1995: 104). 꼴로시오 암살은 단순히 살리나스 프로젝트에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배후 요소들의 총체로써 정치무대를 분해 시킨 국가범죄이다. 이러한 정치상황과 함께 EZLN의 무장봉기에 의해 멕시코는 이미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 라칸도나 산맥에서 기원하는 반대 게릴라들의 총알에 의한 것도 아니고, 합법적 정치게임 규칙에서 배제된 정치단체에 의한 것도 아니라, 차기 대

통령이 될 사람을 암살하기 위해 기존 정치제도 안에서 암살청부업자의 총알에 암살된 것이다(Villamil, 1995: 122-123). 따라서 꼴로시오의 암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정치인 집단이 암살 초기부터 지적했듯이 국가 범죄적(*crimen de Estado*)이다. 둘째, 꼴로시오 암살의 전략적인 측면이다. 꼴로시오는 그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때 암살되었다. 또한 2주전에 꼴로시오는 치아빠스 반란과 그 해결을 위해 까마초에게 정부 공식자격 부여 등 살리나스의 방해로 받았다. 여러 영역에서 대통령 후보 위상을 회복하려는 꼴로시오의 노력에 그의 정치적 대부인 살리나스의 명확한 한계설정이 있었다. 꼴로시오의 시도는 살리나스의 방해로 좌절되었으며, 그것의 귀결로써 꼴로시오는 PRI와 갈등, 살리나스 대통령의 프로젝트 반대 등으로 인해 실패한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또한 꼴로시오 암살사건은 공식권력 내부에서 가장 보호되고 감시되는 사람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비밀스런 권력이 존재한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꼴로시오 암살은 1928년 오브레곤 암살이후 멕시코 정치체제에서 안정, 신뢰, 합의를 65년 동안 가능케 했던 정치 게임의 고갈현상으로써 명백한 증거이다(Villamil, 1998: 80).

꼴로시오 암살이후(PRI 공식 대통령 후보 암살 일주일 후), 1994년 3월 29일 살리나스 대통령과 주지사 그룹은 소노라(Sonora) 주지사인 마닐로 파비오(Manilo Fabio Beltrones)가 제안한 에르네스토 세디요를 대통령 후보로 추천했다. 소노라 주지사는 꼴로시오 후보가 선거 캠페인의 총책임자인 세디요를 칭찬하는 비디오 장면을 보여주었으며, 그들은 그것을 꼴로시오 자신이 지명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 이해했다. 이렇게 PRI는 대통령 후보를 (비디오 장면을 통해서) 선택했다. 이를 일반국민은 “비디오 지명(videodedazo)”라고 칭하고 있다. 그때 당시 PRI 소속 대통령 후보 명단 중에 가장 지지도가 낮았으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던 세디요가 꼴로시오 후임으로 공식 PRI 소속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Ruiz, 1998: 60-61; Castrejón, 1995: 202-203; Villamil, 1995: 127-128; Zárate, 1995: 26-27). 이렇게 PRI 자체와 정부가 보여준 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994년 선거 캠페인 중에서 가장 새로운 것 중의 하나는 대통령 후보간의 TV대담이었다. PRI, PAN, PRD 등 각 정당들은 이런 방식의 공공포럼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포럼은 멕시코 선거과정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첫째, 그 과정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치아빠스 갈등과 합법적 변화 등의 주제들은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동시에 꼴로시오 암살로 인한 사회적 긴장 분위기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했다. 둘째로 PAN 후보인 디에고 페르난데스(Diego Fernández de Cevallos)가 TV토론으로 여론에서 승리했으며, 선거경쟁을 촉발시켰다. 이에 따라 PAN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으며, 멕시코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다. 마지막으로, 공공대담은 다음 선거 경쟁에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전통을 제공했다. 즉, 후보들은 TV로 중계되는

공공포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양한 대중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과 이미지 창출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디요 선거캠프에서는 경제와 정치의 핵심적 과제를 나타내는 2개의 슬로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족을 위한 복지(Por el bienestar de tu familia)”와 다른 하나는 “평화지지 투표(Voto por la paz)”이었다(Pérez et al., 1995: 31; Calderón et al., 1996: 138).

이런 선거과정을 거쳐, 1994년 8월 21일 선거에서 세디요 PRI 대통령 후보는 전체투표에서 48.7%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원선거 결과는 야당의 선전이었다. 이로써 국민이 정부에게 요구한 것은 PRI 내부민주화 뿐만 아니라, 정치체제를 바꾸고 개혁하라는 것이다. 또한 모든 정당들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각 정당의 진정한 변화를 요구했으며, 정당의 정치적 대응은 국민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어야 했다. 이렇게 1994년 선거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국민들의 투표는 예전과 같은 무조건적인 PRI의 지지가 아니라 선택적인 투표를 했다. 그 투표는 TV 대담을 통한 판단에 의해 기존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개인에게 투표하는 것이었다. 투표 당선자나 후보자들은 한 개인으로써, 공공정책 활동과 인격 및 그 밖의 대중적 이미지에 유권자들이 투표함으로써 정당 보다는 개인의 업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투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에서 코포라티즘적 개념은 사라져 가고 있으며 유권자들이 그들의 투표권리를 실질적으로 중시하기 시작한 정치 성숙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Castrejón, 1995:224).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의 멕시코는 아직도 정치·경제체계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치아빠스 농민반란, 북미자유무역협정 적용지연, 꼴로시오 암살, 논쟁적이었던 PRI 소속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세디요, 하원선거에서 야당의 선전, 그리고 1994년 9월 28일 PRI 사무총장인 호세 프란시스코(José Francisco Ruiz Massieu)가 멕시코차치주(D.F)에서 암살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었다. PRI 사무총장 암살은 꼴로시오 암살후 일년 이내에 발생한 두 번째 정치범죄로써 멕시코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감지할 수 있다. 살리나스 대통령은 PRI 사무총장 암살을 실수로 발생한 범죄로 규정했으나, 야당 대변인과 여당인 PRI는 신뢰할 만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생한 정치범죄로써 이번 PRI 사무총장 암살은 정권안정을 위협하려는 목표로 한 정치범죄였다. PRI 지도부의 저항이 예상되었지만, 살리나스 대통령은 화해의 제스처로써 PRI 사무총장 암살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를 PRI 사무총장의 친동생인 마리오. 루이스 마사우(Mario Ruiz Massieu)로 임명했다. 특검 후 얼마 되지 않아 마리오. 루이스는 기존 정권과 충돌하게 되는데, 특히 PRI 지도부와 충돌하게 된다(Villain, 1995: 139). 전 주지사였던 호세 프란시스코는 PRI 소속 상·하원 의원, PRI 소속 정치인, 야당의원 그리고 대통령인 살리나스 대통령 모두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으로써 폭넓은 정치관계를 갖고 있는 그때 당시 중요한 정치인이었다. 또한 호세 프란시스코는 여당인 PRI 내부 살리나스 콤플렉스그룹의 핵

심적인 인물이기도 했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러한 정치위기가 호세 프란시스코 암살을 조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요인 중에서, 첫째 호세 프란시스코는 전 주지사로서 PRI 소속 대통령 후보였던 꼴로시오 암살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살리나스 콤파크그룹의 중요인물이었다. 꼴로시오 암살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계승자 암살이었고, 지금은 PRI의 지도부를 이끌 확실한 계승자 중에 한 사람인 호세 프란시스코를 암살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멕시코 정치체계에서 핵심적인 두 정치기관(대통령과 여당인 PRI)을 이끌 중요한 두 정치인을 암살한 것으로서, 선진국 진입 노력 중에 있던 현대 멕시코는 혁명 후 1920년대 멕시코를 연상케 하는 정치무대가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 정치범죄는 대통령직을 인계하는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 사이의 정권 인수단계에 있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발생했다. 즉, 1994년 8월 21일 대통령선거에서 48.7%를 획득함으로써 대통령 당선자 위상에 있는 세디요와 1994년 12월 1일 정권인수가 있는 현직 대통령인 살리나스가 정권인수 중인 1994년 9월 28일 PRI 사무총장 암살이 발생함으로써 시기적으로 민감한 때에 암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이동 순간에 정치적 암살이 발생함으로써 모든 수준에서 정권이 비판받았는데, 예를 들면 살리나스의 대통령 이후 포석으로써의 정치적 포석, PRI의 강경노선, 살리나스 정권 동안 피해를 본 정치인 등 다양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1988년 불법선거의혹, 치아빠스의 상처 그리고 꼴로시오 암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아젠다 실현의 어려움은 폭력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었다. 셋째, 여당인 PRI는 다시 한번 더 PRI 사무총장 암살로 피해를 본 주요한 당사자 이면서 또한 중요한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 여당인 PRI는 권력공간에서 투쟁을 평화적이고 협상의 형식으로 풀어낼 능력이 부족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호세 프란시스코 암살은 암살의 형태와 살리나스 임기 중 중요한 정치적 사건인 또 다른 2개의 암살이 미친 충격의 파장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던 범죄였다. 중요한 정치적 파장이 있었던 2개의 암살 중 하나는 가톨릭 주교인 후안 헤수스(Juan Jesús Ocampo)³⁾ 암살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 후보였던 루이스 도날도 꼴로시오 암살이다(Villamil, 1995: 137-139). 비록 그때까지 독특한 멕시코 정치체계에서 권력분배가 사회안정의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주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사실들이 멕시코 정치체계의 심각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멕시코의 한 전문가는 이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3) 멕시코 가톨릭 위계상 고위직이며, 당시 헌법 제130조(국가와 종교관계) 개정과 관련하여 살리나스 대통령의 중요 인물이며, 구아달라하라(Guadalajara) 주교인 후안 헤수스는 1993년 5월 24일 오후에 권총 암살을 당했다. 후안 헤수스의 암살은 굉장한 정국불안을 초래했는데, 그 여파는 종교계 뿐 만 아니라, 기존 살리나스 정권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주교의 암살은 꼴로시오 암살에 이어 살리나스 정부의 능력을 의문시켰으며, 통치엘리트 지도부에 대한 멕시코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1. 정치 집단간 권력투쟁은 멕시코 정치체도를 넘어서고 있다. 멕시코 대통령과 PRI 총재는 정치공간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2개의 열쇠로써, 지금은 그 2개의 공간이 갈등의 진원지가 되었다.: 꼴로시오 암살은 살리나스에 대한 도전이었고, 호세 프란시스코 암살은 여당인 PRI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 메시지는 명확했으며, 살리나스 대통령도 PRI도 멕시코의 안정을 보장하지 못했다. 반대로 그는 치참한 메시지 수령자로서 사회의 위험한 불안정을 초래했다. 새로운 정치체제는 폭력 없는 정치를 위한 다른 구조여야 한다. 새로운 정치 구조의 핵심은, 예전에 사회안정을 가져왔던 체계는 포용력이 특징이었으나 그 체계가 배제성을 특징으로 변했을 때 갈등을 촉발시켰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2. PRI는 정치안정에 대한 기여를 상실했다. 비록 PRI가 이러한 갈등에 연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폭력은 그것을 조장하고 또는 억제할 수 있는 PRI의 무능력에 의해 초래된 것이다. 정치는 이제 직업 중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변했다. 행정부에 피해를 주고, 제도를 약화시키며,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인의 암살은 이러한 목적에 이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3. 정치는 권력투쟁을 혁신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공간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정치가 총알에 의해 해결되던 1920년대로 멕시코는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1920년 그때 당시는 무장혁명의 단계들이 완전히 끝난 때가 아니었다. 정치체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치그룹과 정치세력 사이의 투쟁을 전장에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숙청, 실업, 정치적 망명이 폭력적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의 암살은 치아빠스의 무장봉기를 좀더 넓은 범위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즉, 몇몇의 멕시코 집단은 멕시코에서 정치는 정치실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실천은 몇몇의 통치엘리트의 소유권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1994년 사건 중에서 가장 최악의 사태는 냉소주의적인 사회 분위기일 것이다. 즉, 정치범죄, 치아빠스에서 무장봉기, 인질 등은 잊을 수가 없으며, 그것들의 효과들도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Ramírez, 1995:25-27).

이렇게 PRI 내부활동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PRI의 이미지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1994년 선거결과는 예전의 시기로 후퇴한 요소들뿐만 아니라, PRI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통치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새로운 요소들이 형성되어 모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Ramírez, 1995: 113-114). 첫째, 대통령은 PRI와 엄격한 의미의 의존관계가 깨졌다. PRI의 제도적 구조(코포라티즘)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지만, PRI의 프로젝트가 아닌 살리나스 대통령 프로젝트는 처음으로 PRI의 기본적인 멕시코 혁명이데올로기, 1917혁명헌법, 국가의 역할이라는 3개의 목표를 변경하고자 시도했다. 예전의 오브레곤 암살(1928년)에서부터 수십 년 동안 PRI는 정치분과, 정치그룹, 정치성향 간 권력투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직적, 순환적 구조에 의해 정치공간을 구축했지만, 지금은 꼴로

시오와 호세 프란시스코 암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멕시코역사 초기처럼 권력을 향한 권력투쟁의 피비린내 나는 무대로 변모했다. 둘째, PRI에 의해 제공된 이미지의 결과로써 PRI 지도부는 그 정치적 위상 악화를 초래했다. 예전에 PRI 총재의 기본적인 역할은 대통령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었으나, 지난 살리나스 임기 때에는 PRI 총재의 기존의 역할은 볼 수 없었다. 셋째, 통치엘리트 내의 보수정치인과 미국에서 교육받은 개혁파 사이의 갈등은 개혁파인 기술관료들의 승리로 돌아갔다. 보수-개혁 갈등은 PRI 내부에서는 신자유주의와 국가개입주의로 대별되는 명확한 정치목표와 방법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PRI 내부에서 풀로시오의 암살로 인해 권력투쟁에 불이 붙었다. PRI의 전통은 현직 대통령은 그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권한이 단 한번임을 보여주고 있다. 풀로시오의 사망은 PRI와 상관없는 대통령 후보를 두 번째로 지명하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왜냐하면 많은 PRI 추종자들은 풀로시오 사망과 PRI이 깊은 관계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살리나스는 PRI가 지지하는 전통적인 후보자를 피하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방식을 사용했다. 왜냐하면 PRI가 지지하는 전통적인 후보가 선거에 나가게 된다면 절대적인 선거패배가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살리나스는 PRI의 기존 역할을 강조하면서 세디요를 PRI 소속 공식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세디요는 실질적으로 그를 도울 수 있는 PRI 세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풀로시오 암살의 경우와는 달리 호세 프란시스코 암살 사건은 매우 빨리 해결되었다. PRI 사무총장이던 호세 프란시스코 암살 교사범이 갑자기 체포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즉, 1995년 2월 28일 멕시코 검찰청(Procuraduría General de República: PGR)은 전 PRI 사무총장이던 호세 프란시스코 암살의 공동교사범으로 호세 프란시스코의 동서이자 전 살리나스 대통령의 동생인 라울 살리나스(Raúl Salinas de Gortari) 체포를 전격 발표했다(Villamil, 1998: 60-61). 이로써 당시 멕시코는 차아빠스 전쟁에서 전 대통령인 살리나스와 현 대통령인 세디요 사이의 전쟁으로 옮겨갔다. 1995년 2월 마지막 날, 멕시코 정치무대는 멕시코 권력구조에서 정치문화가 변모하는 사태에 긴장감을 보여주었다. 라울 살리나스의 구속은 멕시코 역사상 볼 수 없었던 대통령 가족 구속이라는 역사적 사건 앞에서, 현직 대통령인 세디요와 전직 대통령인 살리나스의 관계가 단절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60년 동안 멕시코 정치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정치폭력이 1994년 멕시코 사회에 다시 나타남으로써 멕시코 정치지배 공간에 있어서의 문제의 심각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 그룹간의 편차가 너무 크고, 가능한 해결 방법들을 제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994-1995년 사이에 발생한 위기는 정치구조 자체의 위기이다. 경제적 비효율성과 함께 경제적 모순이 정치적, 사회적 차원과 수준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 하에서, 멕시코의 사회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제공했던 1929년 이후

멕시코 정치체제는 오늘날 정치적 경쟁과 경제적 상황에 무력한 체제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멕시코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보겠지만 세디요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서 멕시코 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시도한다.

2. 1996년 정치·선거개혁

멕시코는 세디요 대통령이 막 취임했던 1994년 말에 또 다시 경제위기에 휩싸였으며, 이러한 경제위기의 여파로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 세디요 정부는 커다란 경제파탄 때문에 민주적 개혁 필요성을 인식했다. 멕시코의 민주적 개방과 시민사회의 정치적 희망을 허용한 것은 사회의 적대적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국가의 미래 경제에 숨통을 터주기 위한 것으로써, 1994년 12월 세디요 대통령은 정치개혁에 대한 그의 첫 번째 시도으로써 사법부개혁 법률안을 제출했다(González et al., 1996: 187).

법률안은 사법부와 행정부의 개혁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세디요 대통령의 개혁목표들은 멕시코 정치의 근본적인 사안과 서로 맞물려 있다. 세디요 대통령 개혁안의 핵심사안은 사법적 정의 확립, 공화제 강화, 멕시코 정치체계의 민주화, 인권과 공공질서 확립에 관한 것이다.

1995년 1월 13일 세디요 대통령은 PRI 지도부와 모임을 갖고, 정치개혁의 주요한 의제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하자는 의견에 동의했다. 4일 후에 당시 내무부 장관은 하원의 4개 정당인 PRI, PAN, PRD, PT와의 모임에서 정치합의 약속을 통과시키는데 의견을 같이 했음을 발표했다. 이 정치합의의 중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Villamil, 1998: 90-91).

1.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정치개혁을 위해 대화를 빠르게 시도할 것
2.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국가 3부와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사이의 민주적 관계를 심화시키며, 또한 공공기관, 정당, 시민사회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민주화 노력
3. 최종적인 선거법 개혁을 위한 노력
4. 선거와 관련한 민주적 해결을 위한 신뢰 확립
5. 연방선거법 개혁의 기준들을 통합할 수 있는 연방수준의 선거개혁 시도
6. 시민참여를 위한 멕시코 자치주의 정치개혁 추진
7. 차기 선거과정의 적법성, 균형, 투명성 보장
8. 적법성, 투명성,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선거 후 갈등의 즉시적 해결
9. 선거 실시 후 사법기관과 사법기관 결정의 존중

다른 한편, 주요정당 사이에 행한 정치합의 도출은 세디요 대통령이 민주화

를 대안으로 선택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표시이다. 세디요 대통령과 주요 정당들은 국가가 처해있는 위협의 해당 당사자로서 정치적 합의에 서명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야당 정치 지도자인 뽀르피리오 무뇨스(Porfirio Muñoz Ledo)의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민주주의를 향한 멕시코 정치이행의 번복할 수 없는 시도로써 또는 개인적 이익 추구하고 통치불가능성으로부터 국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시도로써 세디요 대통령과 정당들의 정치적 합의에 대한 서명은 역사적인 사건이다(González et al., 1996: 190-192).

이렇게 해서 1995년 8월 21일 여러 달 동안 연방선거위원회(Instituto Federal Electoral: IFE) 6명의 시민대표와 PAN과 PRD 대표들과 있었던 회담의 성과로써 선거개혁을 위한 기본적인 10가지 합의 사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이 문서는 세디요 정부와 PRI가 이후에 유지해야 되는 기본원칙에 대해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의제를 밝히고 있다. 이 정치적 의제는 시민사회가 계속적으로 주장했고 광범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요소로써 선거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주요 정치세력간 선거개혁을 지향하는 기본적인 목표와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Villamil, 1998: 93-94).

◇ 행정부로부터 특히 내무부에 대한 연방선거위원회(IFE)의 독립과 자율성 확보. 이러한 방법으로 연방선거위원회의 핵심기구로써 총괄위원회(Consejo General)를 9-10명의 시민대표로 구성한다. 총괄위원회 의장은 하원에서 선출되며 연방선거위원회의 총책임자이다. 연방선거위원회는 연방정부의 개입 없이 독립적인 예산으로 업무와 예산을 독자적으로 입안·집행한다. 그 예산은 하원에서 통과됨으로써 어떠한 정치세력도 하원에서 승인된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 연방선거재판(Tribunal Federal Electoral)은 선거소송재판(Tribunal de lo Contencioso Electoral) 창설처럼 행정부에 속하는 특별법원의 성격대신에 사법부에 속하게 될 것이다. 연방선거재판은 선거관련 쟁점사안과 시민의 정치권리 위반에 관한 사안을 처리할 것이다. 상기 이의제기는 연방선거재판에 직접 할 수 있다.

◇ 시민들의 정치권리와 선거당국 행위는 헌법의 판단대상이 된다. 그리고 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 시민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 정당의 재정은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국가예산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정당들은 그들의 수입과 지출을 감사받는다. 선거비용과 현금·현물의 개인적인 기증의 엄격한 최대치를 규정하며 개인적인 기증은 단지 자연인으로부터 제한한다. 선거비용의 최대치는 선거인 당 2페소(약 1달러상당)가 될 것이다.

◇ 대중매체에 대한 정당들의 접근권은 평등의 원칙에 근거할 것이다. 전자매체에 의한 의무적 공공토론과 공공매체에 의한 모략, 명예훼손, 거짓 정보에 대한 후보와 정당들의 반론·정정·해명·이의제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 공동후보를 추대하기 위해 특정한 원칙에 의한 정당들 간의 정당연합형성은 허용한다. 동시에 적어도 전국(32개주) 7개 주에서 최소 7천 명 당원으로 “전국정치연합(asociaciones políticas nacionales)” 구성을 허용한다. 이 정치연합은 정당과 함께 동맹을 통한 공동후보를 추대할 수 있으며, 또한 무질서한 후보추대를 방지하기 위한 특정한 규칙 하에 “독자적 후보(candidatos independientes)” 추대도 가능하다.

◇ 국민투표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하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다음에 규정하도록 한다.

◇ 1997년 실시될 선거에서 멕시코 자치주 시장 당선자는 예외적으로 3년의 임기로 하고, 매 6년 임기의 멕시코 자치주 시장(gobernador del Distrito Federal)의 보통·직접 선거 실시에 동의한다.

◇ 정당들의 “조건부 등록(registro condicionado)”은 사라지며, 정당등록을 위한 선거최소 득표를 1.5%에서 2%로 상향 규정하는 단일 규정안을 적용하며, 상·하원의 비례대표제의 접근의 최소 득표는 3%로 규정한다.

◇ 정당가입은 개인 자격으로 하며, 단체나 그 밖의 유사한 형태의 정당가입을 금지한다. 선거 시 투표자 확인과 선거인 명부 등록을 위한 수단으로 “주민확인증(Cédula de Identidad Ciudadana)”을 발급한다. 또한 정당이나 정당의 프로그램에 국가 상징들이나 국가 상징 색깔 사용을 금지시킨다(왜냐하면 여당인 PRI는 정당의 상징깃발에 멕시코를 상징하는 하얀색, 초록색, 빨간색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 멕시코 국민들은 PRI와 멕시코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선거광고는 선거 시에는 중지한다.

이후에 1996년 선거 관련법 개정은 연방선거위원회(IFE) 도입과 새로운 조건의 수용으로 야당들에 의해 요구되던 역사적인 요구들을 수용했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게다가 멕시코의 선거과정을 특징짓는 정부 측의 부정, 탈법, 강요 등의 오랜 전통을 생각하면, 새로운 요소의 도입은 적어도 형식적으로 정부측의 권력남용과 자의성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방선거위원회의 “시민화(ciudadanización)”는 현행의 제도적 해결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는 최종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Cansino, 1998: 36-37). 따라서 1996년 선거개혁은 공정한 선거과정을 보장하는 멕시코의 민주화를 위한 첫 일보를 내딛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 체계모니 정당과 하원에서 대표성을 갖는 야당들의 관심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결국 정부 재정지원문제를 논의할 때 의견편차를 노출시켰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적인 수준에서 선거구조의 진보가 필요함

을 지적할 수 있다(Cansino, 1998: 33-34).

1994년 말 심각한 금융위기에서, 세디요 대통령은 멕시코의 지금까지 반복적인 경제위기와 정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정치구조의 폭넓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당시의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세디요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세디요 대통령은 정치개혁 의도를 의회에서 모든 야당들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잘 보여주었다. 비록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선거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알 수 없었지만, 이러한 진전은 선거과정의 합법성 틀 안에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7년 7월 6일 선거와 1995-1996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승리는 정당구조의 경쟁증가를 보여주고 있다(Cansino, 1998: 34). 그리하여 여당 PRI의 65년 이상의 헤게모니 이후에, 멕시코에서는 지금 정당구조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유일정당 구조 종말에 대한 그 유명한 “공식 선언”을 구체화 시키는데 거의 1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사실 1997년 7월 6일 전까지 멕시코 정당구조가 완전하게 경쟁적이며 PRI가 헤게모니 정당의 특징을 상실했다고 일관성 있게 말할 수 없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선거개혁 이전에는 여당인 PRI가 그들의 특권을 보존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당으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비경쟁적인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미 여러 지역과 지방수준에서 높은 경쟁수준이 유지되는 지역도 있었고 그러한 지역에서는 PRI는 야당이 되기도 했지만, 선거과정은 공정하지 않았다.

1997년 7월 6일 선거에서 PRI는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제1당으로써 위상을 유지했으나, 중요한 2개의 야당인 PAN과 PRD도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PRI는 연방수준에서 실질적으로 반 정도의 통치력을 상실했으며, 야당의 통치지역은 서서히 증가했다. 또한 PRI는 연방하원에서 절대다수의 위상을 상실했으며, 그로 인해 다른 야당들은 협력을 통해 그들의 정치적 결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멕시코 자치주처럼 전략적인 지역에서 PRI의 패배는 PRI의 위상 추락으로써 해석된다. 그러나 연방 하원에서 PRI의 상대적 약화로 나타나는 위상의 변화는 정당구조 변화를 언급하는데 있어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정당구조 변화에 단초가 존재함은 확실하다. 예를 들면, 1997년 선거에서 PRI는 하원의석 총 500명 중 239명을 차지해 하원의 47.8%를 득표했으며, 4개의 야당 전체는 261석을 획득함으로써 하원의원 전체의 52.2%를 차지하였는바, PAN은 121석을 PRD는 125석을 획득했다. 그래서 PRI에 대한 상대적인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야당전체가 협력을 추진했으며, 하원은 새로운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동시에 PRD는 멕시코 자치주 광역의회(Asamblea Legislativo de Distrito Federal)에서 최다득표제 총 40의석에서 38석을 획득했다. 또한 1997년 7월 선거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의 하나는, 멕시코의 수도이자 멕시코 전체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멕시코자치주(D.F)에서 역사상 처음 있었던 시장(Jefe de Gobierno del Distrito Federal) 선거에서 PRD가 승리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PRD와 PRI의 격차가 상당히 존재했다는

것으로, 시장선거에서 PRD는 48.11%를 획득했고 여당인 PRI는 25.59%를 획득했다. 또한 2000년 연방선거에서 전통야당인 PAN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71년간의 PRI의 헤게모니를 와해시켰다. 하원선거에서는 PRI는 211, PAN은 206, PRD는 49 의석을 각각 차지함으로써 PRI는 근소한 차이로 제1야당이 되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2000년에 놀라운 선거결과를 성취했지만, 이러한 변화에 있어 1996년의 정치·선거 개혁이 중요한 요소이다.

Ⅳ. ¼ ð ã ë Å É Ñ Á Ä Æ Ì Õ Î Ï â

1994년에 발생한 많은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다종다양한 사건의 정치적 지각변동 중에, 세디요의 1994년 12월 1일 멕시코 대통령 공식 취임이 있다. 대통령 임기 6년 후에, 세디요 대통령은 2000년 7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PAN 소속 대통령 후보 비센테 폭스 대통령 당선자에게 대통령직을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에게 평화적으로 인계했다. 사실, 멕시코 역사상 처음으로 PRI는 당내 경선을 통해 2000년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했다.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명확한 표현인 소위 “대통령직접지명(dedazo)”의 뿌리 깊은 정치문화 전통을 깨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의 교체는 정치권력의 배분에 있어 급진적인 변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권력교체가 경쟁적 조건 하에서 이루어질 때, 새로운 권력지형은 권력통제의 제도적 메커니즘 도입을 위한 진정한 국가개혁의 동기로 형성될 수 있다. 멕시코는 71년간의 제왕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구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정치적 혼란 없이 2000년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에 도달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멕시코 정치체제가 대통령에게 허용한 권한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세디요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실, 세디요 대통령은 그의 임기 동안에 대통령직 수행에서 오는 활동과 정치쟁점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멕시코 정치무대에서 모든 활동의 중심을 유지했다. 만약 세디요 대통령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멕시코의 민주적 이행은 훨씬 더 연장되었거나 또는 시민사회와 혼란스런 충돌을 통해서 정치 이행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현재 멕시코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진정한 중심으로써 세디요 대통령의 이데올로기 분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크레스포 호세(Crespo, 1999), 로엣 리오단(Roett, 1993) 그리고 카스트레혼 하이메(Castrejón, 1995) 등은 멕시코 정치문화에서 대통령의 정치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의도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멕시코 정치학자인 크레스포 호세(1999: 36-37)는 멕시코 정치문화에서 세디요 대통령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민주화과정은 어떤 의미에서 헤게모니적 제도의 약화 과정을 의미하며, 이것은 군부의 정치무대에 개입과 제도적 요소들이 배제되는 위험을 함축한다. 따라서 최근의 PRI와 노동 코포라티즘이 경험한 파편화와 규율 문란은 군부가 참여하는 경우에 정치적 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대통령제는 점진적인 민주화의 결과로써 자연스런 표시 이상으로 점차적인 약화현상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 경우에 대통령제의 제도적 약화 또한 정치변화 과정과 관련한 세디요 대통령 자신의 전략 또는 태만을 표현한다. 아마 세디요 대통령이 로스 빠노스(los Pinos: 미국의 백악관에 해당하는 멕시코 대통령 집무실)에 입성했을 때부터, 멕시코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몇몇의 전통적인 방해물을 제거하면 충분하며 그 스스로 민주주의에 도달하리라는 생각을 이미 세디요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보여진다. 만약 과도한 제왕적 대통령제가 기존의 권위주의적 정권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근간의 하나였다면, 민주화 도상에 있는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 전통적인 초헌법적 권한을 일정정도 거절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성공적 민주이행은 민주화를 향한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이지 민주화를 이끌고 갈 자들의 정치영역에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디요 대통령이 PRI와 관련하여 언급한 적이 있는 “건전한 거리유지(sana distancia)”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선거적으로 보다 높은 경쟁을 허용하기 위해 헤게모니 정당과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PRI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적 대표로써 PRI의 간헐적인 영향력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공적인 PRI 개혁을 위해 PRI 자체의 민주화가 요구되는 것이지 PRI 지도부의 정치 포기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성공적인 PRI의 개혁을 위해 요청되는 것은 PRI 지도부의 참여 하에 예전 방식으로 후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게임 규칙의 실천을 보장하고, 그래서 정당의 가능한 파편화를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디요 대통령은 그의 정당한 PRI의 개입을 줄여서, PRI 스스로가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처럼 보인다.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크레스포 호세는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와 개혁 공간 개방은 대통령제의 약화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하여 대통령의 직접적인 행동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세디요 대통령은 그의 임기 동안에(1994-2000) 적극적인 정치적 의도와 목표를 갖고 멕시코가 민주주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멕시코 정치체제와 정치문화가 허용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했음을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관찰할 수 있다.

첫째, 실제로 세디요 대통령은 PRI의 총재로써 2000-2006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PRI의 예비 후보자 선정과정을 자유경선 체제를 통해 실천해야 한다고 명확히 언급했다. 비록 PRI 예비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일부의 반발이 있었

으나, 세디요 대통령의 명확한 정치적 신념에 따라 PRI 내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고 대통령 후보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실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PRI의 당내 민주화를 위한 초석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1997년 선거에서 세디요 대통령은 PRI의 선거 참패의 결과들을 초연히 받아 들였다. 정치적 야당세력에게 합법성과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정치참여가 증가했다. 이후에 광범위한 선거의 양적·질적인 변화를 초래했으며,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마지막으로 세디요 대통령은 2000년 대통령선거에서 연방선거위원회(IFE) 예비결과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이후에 공식적으로 연방선거위원회 선거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만약 대통령이 연방선거위원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멕시코의 정치적·사회적 안정에 엄청난 문제들을 발생시켰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려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멕시코에서 많은 사람들이 PRI 안에, PRI에 의해, PRI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선거결과 이후에 멕시코 세디요 대통령은 야당소속 대통령 당선자인 비센테 폭스의 당선을 공식적으로 축하했으며, 2000년 12월 1일 세디요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대통령 당선자에게 평화적으로 인계했고 이로써 71년만의 정권교체와 동시에 멕시코 민주화를 완성시켰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멕시코의 민주주의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자인 세디요 대통령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식사회학적 관점에서 한 정치지도자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이데올로기란 삶의 직접적 체험과정에서 획득되며, 특정한 사회집단에 속한 개인의 경험과 사회관계 속에서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내재화한다는 관점이다. 개인의 특정한 세계관은 그가 속한 사회집단의 이익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편향된 방식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특정 개인의 세계관은 개인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상황을 연결시켜 총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베르너 슈타르크, 1983: 24-25).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멕시코 정치구조와 권력관계에서 세디요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멕시코 대통령으로써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현대정치는 권력의 정통성이 국민의 지지와 승인에 기초하고, 권력자원이 국민의 지지에 근거하여 유지·확대되는 현상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개인의 가치체계에 영향을 주고 특정한 방향으로 정치동력화 하는 규범과 상징체계를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이데올로기는 정치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도구이다.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 개념의 구조적 차원은 상황규정, 지향가치, 실천방안 등으로 파악된다(이영남, 1985: 42-44). 상황규정은 사회에 대한 조직적 비판이나 정치상황에 대한 분석·해석이다. 지향가치는 이데올로기의 규범적·유토피아적 당위성을 포함한다. 실천방안이라는 요소는 상황규정을 근거로 하여 지향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수단·정책·제도 등 일련의 행위계획을 포함한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이데올로기 분석방법은,

첫째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특정한 이슈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 둘째 문서나 보고서를 분석하는 방법, 셋째 일반적 주의주장 내용을 분석하는 유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윌리엄 토마스(William Thomas)의 “상황정의(definitions of the situation)”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상황정의란 정치적 상황에 대한 행위자의 적응적 대응으로써 상황에 대한 관점, 해석, 행동, 정책, 행위유형까지 포함한다(Stryker, 1981: 31). 따라서 상황정의는 이데올로기 개념의 구조적 자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상황정의는 방법론적으로 두 번째 분석유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상황정의는 각종연설, 정부발표, 대통령 인터뷰 내용 등을 참고하여,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정치적 맥락을 포괄적으로 포착하려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황정의는 두 번째 분석유형과 차이점이 있다. 상황정의는 복잡한 정치상황을 간결하게 묘사하며, 시대적·사회적 맥락에서 특정한 정치상황을 반영한다. 또한 정치상황 변화에 따른 변화과정을 포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디요 대통령의 정치이데올로기를 연구하기 위해 사용된 분석자료로 매년 하원에서 대통령이 발표하는 연례보고문을 선정하였다. 멕시코 헌법 제69조는 하원 개회식에서 멕시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대통령이 문서 형태로 발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하원연례 보고는 국가의 중요한 사안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멕시코 대통령의 하원 연례보고는 매년 대통령과 행정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멕시코 정치구도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멕시코의 독특한 정치문화와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사항으로써 정치적 중요성과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는 대통령 하원 연례보고로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세디요 대통령은 1995-2000년의 임기동안 빠지지 않고 산 라사로(San Lázaro) 하원 개회식에서 연례보고를 행해왔다. 본 논문의 자료분석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대통령 재임동안 세디요 대통령이 행한 여섯 번의 하원 연례보고 연설을 유형화하여 이데올로기적 내용을 파악했다. 둘째, 유형화된 이데올로기적 내용에 대해 멕시코 정치상황을 고려한 인과적 분석을 시도했다. 첫 번째 분석과정에 사용된 분석단위는 단락이며, 분석된 단락을 기준으로 이데올로기로 유형화했다. 이후에 이데올로기 유형을 빈도로 계량화했다.

지금은 세디요 대통령의 개인적 성장·교육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951년 세디요는 평범한 전기기술자의 자식으로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에서 출생했다. 세디요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보다 좋은 교육과 직업을 위해 세디요 가족은 미국 국경지역인 멕시코 북부로 이사했다. 그곳 공립학교에서 교육받은 세디요는 미래를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쳤으며, 학교 생활은 성실했고 충명한 학생이었다(일반적으로 멕시코에서 사립학교는 부유한 계층의 자녀, 공립학교는 일반서민 계층의 자녀라는 사회·문화코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서민 가정에서 태어난 세디요는 그의 가족과 이웃이 겪는 물질적 어려움을 보면서 성장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으며, 교육만이 개인적 고난극복과 사회정의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이해했다. 세디요 가족은 세디요가 14세 때 학업을 계속시키기 위해 다시 멕시코시로 돌아왔다. 18세 때 공립대 경제학과에 입학했으며, 가정 형편상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했다. 이후 국비장학생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수학했으며 경제학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일반적으로 멕시코 대통령들은 멕시코 상류계층에 속한다. 예를 들면, 살리나스 부친도 멕시코 재정부 차관까지 역임한 바 있다. 세디요는 하류계층에서 태어나 경제적·문화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성장배경을 갖고 있었으나, 교육을 통해 사회 진입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후 경제관료로써 멕시코 중앙은행을 거쳐 1987년에 경제기획원 차관에 이른다. 교육을 중요시하던 세디요는 1992년 교육부 장관에 취임하여 교육개혁을 시도했다. 세디요는 항상 교육만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한 준비임을 잊지 않았다. 또한 세디요는 공직생활 동안 서민의 삶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다(서민취향의 세디요 대통령은 플라스틱 재질의 카시오 시계를 즐겨 착용했으며, 그것이란 때 멕시코 상류층에 유행이 되기도 했다). 1994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세디요는 사법개혁, 가난퇴치, 선거법개혁, 공정한 정부 등을 정책핵심과제로 선언했다(www.presidencia.gob.mx). 6년 후인 2000년에 야당소속 대통령당선자에게 대통령직을 평화적으로 인수인계 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세디요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디요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합법성’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공립대 입학과정에서 영국·미국 국비장학생이 되기까지의 개인적 경험, 둘째, 영국과 미국에서 생활한 경험, 셋째, 71년만에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통령당선자에게 평화적으로 대통령직을 인수인계 한 점, 넷째, 대통령 퇴임 후에 특별한 개인적 부패혐의가 없다는 점 등이 있다. 따라서 세디요는 합법성과 원칙을 중요시했으며 국민여론에 귀기울이려 노력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1995-2000년 동안 세디요 대통령의 연례보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1995년 정례보고 분석

본 연구결과 1995년 첫 번째 하원정례보고 연설에서 세디요 대통령이 언급한 합법성이 1위를 차지했으며, 분석에서 30%를 획득했다. 합법성의 이데올로기 범주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포함하는데, 표현 그 자체 뿐 만 아니라 내용의 문맥과 내포적 의미도 해당한다; “법의 틀 안에서(marco de derecho), 법치국가(Estado de Derecho), 법률적 틀 안에서(marco jurídico), 개혁(reforma), 헌법적 개정(reforma constitucional)” 등이다. 1995년 2위를 차지한 것은 14.2%를 갖는 시민성(ciudadanía)으로써 다음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시민성을 언급했다.; “시민의지

<표 1> 멕시코 민주화 연구 주제 1995-2000

주제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민주주의(normalidad democrática, legitimidad democrática, cultura de la democracia, ejercicio democrático, régimen democrático, desarrollo democrático, vida democrática, convivencia democrática)	17	18	11	27	30	41
관용(tolerancia)	0	0	1	2	10	3
자유(libertad, liberalidad)	3	7	3	3	3	19
합의(consenso, negociación)	6	6	2	4	4	2
선거 민주주의(competencia política, competencia electoral, contienda democrática, participación social, alternancia política, leyes electorales, disposiciones electorales, instituciones electorales, autoridad electoral, reforma electoral)	5	5	6	2	8	10
발전(desarrollo, progreso)	14	1	10	5	4	15
합법성(marco de la ley, imperio de la ley, apego de la ley, Ley, cumplimiento de la ley, marco de derecho, Estado de Derecho, derecho, marco jurídico, reforma, reforma constitucional)	45	66	30	19	18	17
정의(justicia)	17	13	18	9	3	5
시민성(voluntad ciudadana, ciudadana, civilidad, voluntad popular, autodeterminación, defensa de la soberanía, soberanía nacional)	21	20	16	13	8	6
분권화(descentralización, federalismo)	19	9	10	2	4	1
총계	147	155	107	86	92	119

* 표 1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세디요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나타내며, 이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세디요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나타낸다.

(voluntad ciudadana), 시민성(cidadanía), 시민주의(civilidad), 국민의지(voluntad popular), 자결(autodeterminación), 주권보호(defensa de la soberanía), 국민주권(soberanía nacional)” 등이다. 1995년 3위를 차지한 것은 분권화(descentralización)와 연방주의(federalismo)로써 13%의 비중을 차지했다.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 취임 일년이 지난 하원정례보고에서 세디요 대통령은 그의 걱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연설에서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써, 시민의 권력

접근권이나 합법성에 대한 쟁점은 60여 년 동안 강력한 대통령제와 코포라티즘 협약에 기초하는 중앙집권화 된 정부와 그의 제도적 권력이 축적한 거대권력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암묵적으로 세디요 대통령은 정부관료기구의 효율 성과 기능에 대한 우려를 그의 연설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세디요 대통령 임기 1년을 보내고, 즉 대통령으로써 1년의 학습과정을 거치고, 정치적 중앙집권화는 다급한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어려운 사회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정부와 국가의 현 상황에서 장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방해물로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첫째 하원정례보고 이후 분석에 의하면 분권화(descentralizacin)와 연방주의(federalismo)는 점점 감소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사라졌고 다른 새로운 주제가 언급되었다.

2. 1996년 정례보고 분석

1996년 분석에서 1위는 42.5%에 해당하는 합법성(legalidad)이 차지했으며 1995년과 동일하게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비중으로 보면 세디요 정권 동안 가장 높은 수치이며, 1995년 보다 12.5%(30%→42.5%)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다음해인 1997년에는 세디요 행정부 임기 중간선거가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세디요 대통령은 모든 멕시코 인들과 관료들에게 다음의 선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디요 대통령은 1996년 야당들과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정치·선거 개혁을 성공적으로 실천했다. 따라서 멕시코 국민에게 1997년 선거에서 현행 선거법 준수를 요구했는데, 특히 선거관련 모든 당사자들이 현행 선거법 이행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위는 1위를 차지한 합법성(42.5%)의 비중보다 훨씬 낮은 13%를 획득한 시민성(ciudadanía)이다. 시민성은 1985년 지진에서 시민의 활발한 활동에서 비롯되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써 특히 1989년 PRD 창당 이후에는 시민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다. 예컨대, 야당에게 (PRD) 의미를 부여한 시민운동은 1997년 멕시코 하원선거와 멕시코 자치주 시장선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하원의 여소야대 정국과 PRD 후보가 역사상 처음으로 시장에 당선되는 개가를 올렸다. 1996년 3위는 11.6%를 획득한 민주주의(democracia)가 차지했으며, 다음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민주주의 이념을 표현했다.; “민주적 규율(normalidad democrática), 민주적 정당성(legitimidad democrática), 민주주의 문화(cultura de la democracia), 민주적 실천(ejercicio democrático), 민주적 정권(régimen democrático), 민주주의적 발전(desarrollo democrático), 민주주의적 삶(vida democrática), 민주적 공존(convivencia democrática)” 등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디요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보장적 측면에서 합법성(legalidad)을 이미 주장한 바 있으며, 그리고 참여적 측면에서 시민적 참여(participación ciudadana)를 호소했다. 세디요 대통령은 또 다른 측면에서 1997년 선거에서 보다 폭넓은 목표인 민주주의 가치의 중

요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1997년 선거 이후에 세디요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를 명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 민주주의 가치는 1998년, 1999년, 2000년에 계속적으로 1위를 차지한다.

3. 1997년 정례보고 분석

1997년에 세디요 대통령이 언급한 합법성이 28%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정의(justicia)로 16.6%를 차지했으며, 3위는 시민성(ciudadanía)으로 15%를 차지했다. 1996년 보다 13.5%가 하락했지만, 1997년 1위는 28%로 합법성이 차지했다. 1995-1997년 3년 연속 합법성의 이데올로기가 1위를 차지함은 중요성을 함의하고 있다. 1997년 7월 선거결과는 여소야대라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세디요 대통령은 그러한 현실을 합법성의 틀 안에서 인정했다. 2위는 정의 이데올로기로써 1위보다 11.4%가 낮으나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1위인 합법성의 틀 안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치른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1998년 민주주의가 1위로 부상되는데, 그러한 이유는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합법성의 이데올로기가 나름대로 정착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세디요 대통령은 만족한 평가를 내린 듯 하다.

4. 1998년 정례보고 분석

1998년 세디요 대통령이 언급한 민주주의(democracia)가 31%로 1위를 차지했다. 1998년 2위는 합법성으로 22%를 차지했으며, 3위는 시민성으로 15%를 차지했다. 1995-1997년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합법성이 2위가 되고, 비중에서 31%를 차지함으로써 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1996년 11.6%로 3위를 획득한 때 보다 약 20%가 상승하여 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비중으로 부상했다. 이것은 이후에 1998-2000년 3년 동안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함으로써 세디요 대통령의 중요한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95-1998년 4년 동안 연속으로 시민성이 언급됨으로써, 시민성도 세디요 대통령의 중요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합법성의 이데올로기는 1998년 이후에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보다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성은 6년 연속 언급된 중요한 이데올로기임에는 틀림없다.

5. 1999년 정례보고 분석

1999년 세디요 대통령은 다시 한 번 1위를 차지한 멕시코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비중은 32.6%로써 1998년의 31% 보다 1.65% 상승했으나 그 폭

은 그리 크지 않다. 2위는 합법성으로써 19.5%를 차지했으며, 3위는 관용(tolerancia)으로써 10.8%에 해당한다. 1999년 3위에 새롭게 나타난 관용은 2000년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살리나스 전 대통령과 세디요 대통령의 갈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디요 대통령은 1년 후에 대통령직을 다음 대통령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시점에서 그가 속한 여당 뿐 만 아니라 모든 정당에게 그리고 코포라티즘 협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함이 없이 전반적인 정치적 포괄성(globalidad política)의 정신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포라티즘 협약은 멕시코 지배집단의 협약으로써 정치적 가치들의 상호교환 때문에 관용과 같은 개념은 불가피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관용의 이데올로기는 대통령 권력을 인계해야 할 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알리는 징후로써 판단된다. 세디요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멕시코 대통령에게 관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디요 대통령은 아마도 모든 형태의 국내정보와 국제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써, 2000-2006년 임기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1929년부터 멕시코 역사상 처음으로 PRI 소속 대통령 후보가 선거에 당선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6. 2000년 정례보고 분석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00년에는 세디요 대통령이 언급한 민주주의가 1위를 차지했으며 1999년 32.6% 보다 약간 오른 34.4%이었다. 2위는 자유(libertad)로써 16%를 차지했으며, 3위는 합법성으로써 14.2%를 차지했다. 2000년 2위를 차지한 자유(libertad)와 관용(tolerancia)의 이데올로기 사이에는 서로 관련이 있는 듯 하다. 세디요 대통령은 그의 임기 3개월을 남겨두고 행한 연설에서 멕시코 대통령 당선자인 비센테 폭스(Vicente Fox)에게 자유와 관용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세디요 대통령이 호소하는 것은 2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자유와 관련해서 세디요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인 비센테 폭스에게 세디요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를 요청하는 것이거나, 또는 PRI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야당으로써 야당 이상의 역할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합법성도 언급했음(2000년)을 고려할 때,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설득적이라는 판단이다. 동시에 자유와 관용의 가치는 기존의 멕시코 정치문화에서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자유와 관용의 가치는 세디요 대통령의 이데올로기이면서 개인적인 제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유와 관용이 세디요 대통령의 이데올로기라는 측면에서, 세디요 대통령은 그의 소속 정당인 PRI의 70년 이상의 헤게모니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긍정적이지 않으며, 몇몇의 역사적인 문제들은 합법성과 민주주의가 균건한 가치로 여겨지는 틀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 판단한 것 같다.

7. 1995-2000년 정례보고 분석결과 및 함의

정리하면 6년간(1995-2000) 세디요 대통령은 하원정례보고 연설에서 임기가 지나감에 따라, 멕시코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들을 강조했다. 세디요 대통령의 임기 전반인 1995-1997년 동안에 대통령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합법성의 이데올로기를 언급했으며, 합법성은 1996년에 가장 높은 수치인 42.5%를 차지했다. 실제로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결과 집계시스템 붕괴로 인한 부정선거 시비와 그로 인한 엄청난 정국불안이 초래되었고, 1994년 선거 불투명함 속에서 국민들은 예전의 부정선거 시비와 정국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세디요 대통령은 확고하고 정당성 있는 정부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법 틀 안에서의 합법성 존중이라고 강조했다. 임기 후반인 1998-2000년 동안에 세디요 대통령에게 중요한 가치는 민주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1998년, 1999년, 2000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과 1999년에 2위를 차지한 가치는 합법성이었으며, 2000년에는 자유와 관용과 같은 일시적, 상황적 가치들이 등장했다. 멕시코 민주화를 위하여 중요한 이러한 가치들은 항상 전체로써 시민사회를 이끄는 다른 보완적인 가치들을 표현했다. 예를 들면 자유, 관용 같은 가치들과 멕시코 시민사회가 오랜 동안 요구한 시민성(ciudadanía)의 이데올로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국가의 구체적인 상황들과 국내문제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세디요 대통령은 민주적 제도보호, 관료제 역할변화, 예컨대 분권화·연방주의 등 관련분야에서 정치구조와 정치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의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과제도 잊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세디요 대통령이 그의 임기동안 유지했던 중요한 3개의 정치이데올로기는 합법성(legalidad), 민주주의(democracia), 시민성(ciudadanía)이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세디요 대통령은 정치 이데올로기로써 합법성, 시민성, 민주주의 등을 여러 번 언급했는데, 그것의 중요성은 1997년 선거 이후에 행한 연설에서 변화했다. 세디요 대통령의 경제적 목표들은 전 대통령인 살리나스의 경제노선 즉,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미국과 캐나다와의 경제통합을 통해서 보여준 경제적 신자유주의를 유지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디요 대통령의 이데올로기적 선택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노선은 그의 전임자와는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디요 대통령은 국내 내부 모순 해결을 위한 길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는 아직 경제프로젝트를 불안정하게 하는 위험이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멕시코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에서 변혁 논리의 핵심이었다. 그 중 하나는 경제적인 것으로 데 라 마드리드(De la Madrid)가 추진한 보호주의적이고 개입적인 경제모델의 고갈에 의해 세계무역의 틀 안에서 맥

시코 세계시장진입과 시장자유화로 경제모델을 전환했다. 세계시장진입과 시장자유화는 1982년 경제위기로 인해 데 라 마드리드 대통령이 시작했으며, 곧이어 살리나스 대통령에 이어 세디요 대통령도 같은 경제정책 노선을 추구했다. 다른 하나는 전통적으로 유지되었던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범치국가로의, 즉 민주주의로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세디요 대통령이 1997년과 2000년 선거에서 보여주었듯이 선거법개혁 뿐만 아니라 선거적법성을 실천한 데 있다. 그래서 민주적 정치이행의 일단락이 이루어졌으며 선거를 통해서 표현된 정치이행의 한 시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즉,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한편으로는 경제위기 요소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활동으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선거법 개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새로운 선거법에 의해 실시된 선거에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 민주화를 성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의 깊은 갈등 없이 두 대통령 임기인 12년 동안에 정치이행의 여러 측면을 보여 주었다. 멕시코 정치이행은 71년의 긴 여정 속에서 마침내 그 종착역에 도착했다. 이제는 출발역에서 실었던 짐들을 풀고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 짐들의 정리와 사람들의 배치는 그 과정이 쉽지 않더라도 과거의 방식을 지양하고 그들의 희망이 잘 반영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의 배치는 그들의 21세기를 향한 비전의 크기와 빛깔로 채워질 것이다.

Ⅲ. $\hat{I} \hat{A}$ »

정치과학은 그 분석체계가 구체적인 인간에 의존하는 정치현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현실이 지시하는 구체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분석되고 지적된 요소들이 왜 그렇게 구체화되었는지 모두 설명할 수 없지만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 하나의 가능성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앞에서 광범위하게 지적한 것처럼, PRI 소속 대통령 후보의 암살, 치아빠스 농민반란, 경제위기 등에서 기인하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며, 이러한 불안정한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어, 멕시코를 민주화해야 하는 상황으로써는 부적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오래된 전통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적·정치적 현실이 형성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능력향상, 여당의 균열, 치아빠스 농민반란 등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정치역학구조 불균형은 폐소화 평가절하라는 방식으로 가장 약한 사회 전선을 뚫고 일시에 경제적 태풍이 발생함으로써 한나라의 정치적 위기가 무차별적으로 국민에게 분산되었다. 그때 당시 멕시코는 실망한 시민들이 봉기로 나타날 수 있었던 높은 휘발성을 담지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정치안정의 진정한 기초로써 제도화된 대통령의 중요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멕시코 대통령으로써 세디요는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선거적·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많은 권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제도적 본질 그리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요소들이 세디요 대통령의 정치에 녹아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적 측면에서 지적하면, 살리나스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경제적·정치적인 틀은 그의 외적인 특징을 보여주었다. 일시적인 모순들이 아닌 제도적 관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인 PRI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당시 전국유대프로그램과 함께 전반적 경제정책은 치아 빠스 농민반란이라는 대응방식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대통령 후보 암살은 PRI의 새로운 이미지를 시민사회에 각인시켰다. 살리나스가 제도개혁을 통해 추진한 PRI의 내부 안정성은 중요한 통치 엘리트가 암살됨으로써 중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해서 세디요는 단순한 권력분배에 의해 내부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정당과 시민사회가 존재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제도적 관점에서 지적하면, 정치적 개방과 관련하여 야당이 하원구성에서 뿐만 아니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PRD 대표인 꾸아떼묵 까르데나스의 멕시코 자치주 시장당선처럼 전략적인 위상에 이를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래서 야당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정부정책을 거부하거나, 정부권력을 제한하거나, 또는 적어도 정부의 결정을 연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면, 정당성과 투명성이 부족했던 세디요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세디요는 중요한 정치인이었지만 당내핵심 세력인 살리나스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당내 역학관계에서 그의 위상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중간적인 입장과 시민사회의 존재는 세디요에게 상대적인 자율성과 정당성을 부여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민주화를 촉진시킬 수 있었다.

전에 지적한 것처럼, 세디요는 정치자유화를 취하지 않거나 폭넓은 정치자유화를 취하지 않고서도 그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권위주의 체계의 논리를 유지하면서 약 30년 전부터 전개해왔던 정치자유 허용목록을 첨가하며 야당과 시민에게 적절한 시기에 정치자유를 확대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디요는 멕시코의 위급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민주화를 선택했다. 실제로 세디요는 민주주의, 합법성, 시민성과 같은 가치들을 강조했으며, 정치·선거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세디요 대통령의 선거법개혁은 중요한 반향을 일으켰다. 대부분의 야당 세력과 합의에 기초한 1996년 정치·선거개혁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조금씩 분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세디요 대통령은 반대세력에게 일시적인 정치자유 허용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1988년 선거집계 시스템 고장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 권력과 매우 근접한 정치공간에서 이러한 변화는 대통령의 의식적인 도움 없이 평화롭게 진행될 수 없다. 세디요 대통령은 권력확대를 추구하지 않고 멕시코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퍼져있는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위기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받아들였다. 그

의 활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외국 참관인들의 의미 있는 참여 속에서 치른 선거를 인정하면서, 야당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71년 만에 야당소속 대통령 당선자에게 대통령직을 평화적으로 인계한 첫 번째 멕시코 대통령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는 멕시코 민주화 과정에서 세디요 대통령의 역할만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 멕시코 민주화 과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 다른 요소로는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한 지속적 자본축적의 위기,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표현되는 경제통합, 통치엘리트 내부분열, 시민사회 역량확대, 야당의 활동, 선거개혁 등이 있다. 특히 멕시코와 국경을 서로 접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있다. 1994년부터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지경학적 입장과 불법이민, 마약, 테러 등 미국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지정학적 입장, 미국의 중요 대외정책인 인권과 민주주의 추구 입장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도 멕시코 민주화에 중요하게 작용했으나, 이러한 것을 다루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다.

비센테 폭스 대통령의 임기가 벌써 중반에 들어선다. 그의 임무는 멕시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배어 나오는 ‘희망과 좌절의 방정식’에서 실현 가능한 파레토 최적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어떠한 화려한 정치논리도 현실에서 시민들의 희망과 아픔을 포용할 수 없을 때는 의미를 상실한다. 멕시코 정치가 그 동안 시민들의 일상성 속에서 구체적인 삶과 동떨어진 “향수뿌린 엘리트(elite perfumado)”인 그들만의 잔치였다는 강한 비판이 있음을 직시해야 할 때이다.

《 참고 문헌 》

- 김재영 외 3인 공저. 2002. 『정치학의 이해』. 삼우사.
 민준기. 1993. 『정치발전의 이해』. 법문사.
 문병주. 2000.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양지.
 이영남. 1985. 「정치 이데올로기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Aziz Nassif, Alberto. 1996. *México: Una agenda para fin de siglo*. Centro de Investigaciones, Interdisciplinarias en Ciencias y Humanidades.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México.
 Berner Shutak.. 1960. *The Sociology of Knowledge*. RKP, London. 임영일 역. 1983. 『지식사회학』. 한길사.
 Blancorelas, J. Jesús, González Delgado, Héctor Javier, Navarro Bello, Adela y Ortiz Franco. 1997. *El tiempo pasa de Lomas Taurinas a Los Pinos*. Editorial Oceano, México.
 Calderón Alzati, Enrique y Cazés Daniel (coordinadores). 1996. *Las elecciones*

- presidenciales de 1994, La Jornada Ediciones.* Centro de Investigaciones en Ciencias y Humanidades de UNAM, México.
- Cansino César(coordinador). 1998. *Después del PRI: las elecciones de 1997 y los escenarios de la transición en México.* Centro de Estudios de Política Comparada, México.
- Castrejón Diez, Jaime. 1995. *La política según los mexicanos.* Editorial Oceano, México.
- Crespo, José Antonio. 1999. *Los riesgos de la sucesión presidencial.* Centro de Estudios de Política Comparada, México.
- González Sandoval, Juan Pablo(coordinador). 1996. *El año del vacío.* Editorial Oceano, México.
- González Villareal, Roberto(coordinador). 1996. *Ingovernabilidad: la gestión de las crisis en el gobierno de Ernesto Zedillo.* Editorial Plaza y Valdés, México.
-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Informe Presidencial del 1 de septiembre de 1995, México.
- Informe Presidencial del 1 de septiembre de 1996, México.
- Informe Presidencial del 1 de septiembre de 1997, México.
- Informe Presidencial del 1 de septiembre de 1998, México.
- Informe Presidencial del 1 de septiembre de 1999, México.
- Informe Presidencial del 1 de septiembre de 2000, México.
- Ortiz Pinchetti, José Agustín. 1997. *Reflexiones privadas, testimonios públicos.* Editorial Oceano, México.
- Pérez Fernández del Castillo, Germán, Alvarado M. Arturo y Sánchez Gutiérrez, Arturo(coordinadores). 1995. *La voz de los votos: una análisis crítico de las elecciones de 1994.* Editorial Miguel Angel Porrúa, Facultad Latinoamericana de Ciencias Sociales, México.
- Ramírez, Carlos. 1997. *El asesor incómodo.* Editorial Oceano, México.
- Ramírez Fuentes, Carlos. 1995. *Cuando pudimos no quisimos, el decenio del derrumbe: la transición y el caos.* Editorial Oceano, México.
- Roett, Riordan(coordinador). 1993. *La liberalización económica y política de México.* Editorial Siglo XXI, México.
- Ruiz Massieu, Mario. 1998. *Testimonios a tiempo.* Editorial Oceano, México.
- Stryker, Sheldon. 1981. "Symbolic interactionism: Themes and variations."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s.* Morris Rosenberg and Ralph Turner., eds. pp.3-50.
- Unidad de Análisis Prospectivo. 1993. *El Financiero, Sucesión pactada: La ingeniería política del Salinismo.* Editores Plaza y Valdés, México.

- Villamil, Jenaro. 1995. *Ruptura en la cúpula*. Editorial Plaza y Valdés, México.
- _____. 1998. *Los desafíos de la transición: escenarios del cambio político en México*. Editorial RAYA ENEL AGUA, México.
- Zárate, Alfonso. 1995. *Los usos del poder*. Editorial RAYA ENEL AGUA, México.
- www.presidencia.gob.mx (인터넷 검색)

Mexican Democratization through the Zedillo's Administration 1994–2000

Kim Dal-Kwan

*Researcher, Institute of Asian & American Studies,
Dankook University*

On July 2 2000,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ctions in Mexican history took place. In this presidential election, A new chapter in Mexican politics was written as, Vicente Fox of the PAN defeated Francisco Labastida Ochoa of the PRI; marking the first significant leap forward in democratization in the country since the Mexican revolution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victory of the PAN put an end to the seventy-one-year rule of the PRI, that began in 1929. Few in Mexico had expected that the hegemonic PRI would ever lose power or that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PAN could actually defeat “the sixth monarchy” of the PRI by such a wide margin.

This case is alarming because the Mexican president is very powerful in many aspects of party politics and body politics; from policy-making to policy executions as well as from legal control to administrative control. Thus The peaceful transition of power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president's tacit and explicit-consent, Since he held an almost absolute control over the result of the elections. In an effort to identify the factors behind this democratic transition of power in 2000,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explore the presidency of Ernesto Zedillo, (who remained in office from 1994 to 2000), in terms of the three political ideas: legality, citizen sovereignty and democracy. This study will examine these ideas in connection with the economic crisis in 1994 and the political reform of 1996 that preceded President Zedillo's term in office.

Keywords: *Mexican democratization, liberalization, democracy, political transition, political change.*

김달관, 단국대학교 아시아·아메리카 문제연구소 연구원, (150-811)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604-45, Tel: 02-843-2422, 011-9122-7585, E-mail: mundokdk@hanmail.net